기억을 바로 세우는 일, 역사를 살리는 일

현불논단



금해 스님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기획실장

최근 큰 화제를 모으며 '천만 영화' 반열에 오른 영화 '왕과 사는 남자'는 실제 역사에 상상력을 더해 오늘의 삶 속으로 끌어냈다. 관객들은 스크린 속 인물에 공감하며 때로는 찬사를, 때로는 비판적 지지를 보냈다. 이 같은 반응은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만든다.

역사는 과거의 기록이지만,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자 미래를 여는 나침반이다. 올바르게 기록된 역사는 후대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갈 수 있도록 돕는 가장 단단한 토대가 된다. 우리는 과거를 통해 현재의 문제를 성찰하고, 그 속에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한다.

역사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 주는 뿌리이기도 하다. 공동체는 같은 기억을 공유해 정체성을 형성하고, 분열을 넘어 하나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 올바른 사료(史料)는 삶의 기준을 세우고, 선택의 순간마다 깊은 통찰과 교훈을 준다.

그러나 역사가 왜곡되거나 방치될 때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 역사가 특정 집단의 논리에 휘둘릴 때 사회는 불필요한 논쟁과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다. 이는 학술적 논쟁을 넘어 심각한 인적·시간적·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야기한다. 또한 잘못 기록된 역사는 피해자들에게는 폭력이 되고, 가해자들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사회적 책임이 결여된 역사 서술은 결국 불신을 낳고 미래로 나아가는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뿐이다.

특정 종교 부각 주어사지 안내판 왜곡
전국비구니회 노력 속 15년 만에 수정
오류 바로잡고 후대에 진실 전승 의지

조계종 전국비구니회는 그간 왜곡된 천진암과 주어사지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왔다. '주어사지 종합 안내판'에는 특정 종교의 역사만 부각되고 사찰로서의 역사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왜곡된 형태로 전해져 왔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전국비구니회는 오랜 기간 문제를 제기했고, 현장 조사와 전문가 자문,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듭해 왔다. 이러한 노력 끝에 15년 만인 지난해 종합 안내판을 수정·재설치했다. 역사 왜곡으로 인한 오류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혼란을 주는지, 바로잡기가 얼마나 힘든지 직접적으로 보여 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잘못 기록된 정보나 편향된 시각을 바로잡는 일은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고, 사실에 기반한 진실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때 비로소 시민들은 편견 없이 과거를 마주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성찰과 화해가 가능해진다. 왜곡된 기억 위에서는 어떠한 화해도 이뤄질 수 없으며, 지속 가능한 공동체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

영화가 보여 준 역사적 상상력 역시 '진실된 역사'라는 토대 위에서만 의미를 지닌다. 사실이 흔들린 자리에서의 상상력은 또 다른 왜곡을 낳을 위험이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상상력 이전에, 먼저 사실을 바로 세우는 일에 충실해야 한다.

과거를 올바르게 기억하고 기록하는 일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의무다. 동시에 미래 세대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기도 하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올바른 역사를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하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오늘을 사는 우리가 미래에 남길 가장 값진 유산일 것이다.

아소카 프로젝트

세간과 출세간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

미국과 이란 간에 벌어지고 있는 중동전쟁으로 인해 온 지구촌이 불과 피로 엉켜진 대혼란의 늪에 빠져 있다. 인간 삶에 있어 전쟁은 과연 무엇인가? 고고인류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석기시대 유물 중에 전쟁 도구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고, 청동기 시대에는 그 숫자가 급격히 늘어났다고 한다. 인류학자들은 인간이 전쟁을 통해 진화됐다고 주장하고, 반대로 전쟁 억지를 통해 진화됐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전쟁론〉의 저자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이 우리의 의지를 구현하기 위해 적에게 강요하는 폭력행위"라고 정의한다. 전쟁은 힘 있고 잘난 체하는 사람들이 주도하고 그 피해는 힘없는 보통 사람들의 몫이다. 전쟁을 주도하는 개인이나 집단은 각종 명분과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대중에게 최면을 걸고 인간의 사유 특징인 구분심을 극대화해 증오심을 유발시켜 전쟁 동원에 이용한다. 전쟁은 탐진치 삼독의 극치로서 고성제의 제일 큰 원인을 제공한다. 붓다만큼 전쟁의 고통을 당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코살라국의 비유리 왕에 의해 석가족이 멸족되자 그 고통으로 붓다의 머리에 뜨거운 김이 서렸다고 경전은 전하고 있다.

새삼 아소카 왕이 떠오른다. 동시에 '아소카 프로젝트'라는 용어도 사용해 본다. 아소카는 인도 최초 통일제국인 마우리아 왕으로 매우 잔인했다. 왕위 계승 다툼 과정에서 이복동생을 다 죽였고, 그의 통치 방법은 매우 잔인했으며, 무자비한 전쟁 영웅이기도 했다. 오늘날 미사일에 해당하는 비마나라는 비행체를 만들어 적국을 초토화하기도 했다. 그런 그가 정복한 칼링카국의 비참한 모습에 큰 충격을 받고 참회해 불교로 개종했다. 불교에 귀의한 후 그의 통치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경이롭다. 특히 그가 쓴 복지 정책은 서구의 학자들도 놀라워하고 있다. 불교의 생명윤리에 바탕하여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의 복지에도 관심을 가진 것이다.

탐진치 극치 전쟁 시국, 아소카 왕 연상
개종 후 불교 생명윤리 바탕 통치자 변모
연기적 가치관 실천할 지혜·전법 절실해

아소카 프로젝트의 기본 정신은 '연기적 자비관'의 실천에 있다. 무자비한 아소카가 처음부터 등장하지 못하게 하고, 또한 무자비한 아소카를 자비의 정원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국제적십자위원회와 불교학자들이 공동 노력으로 2024년 출간한 〈불교와 국제인도법〉의 내용은 전쟁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천 불교의 가치를 나타내고 있다. 불교의 역사 속 전쟁 동조에 나타난 불가피성에 대한 설명도 있지만 불교가 연민과 자비, 그리고 관용을 통해 국제인도법의 핵심 원칙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아소카 프로젝트의 핵심 가치인 연기적 자비관은 '진제(眞諦)'이고 이를 구체적으로 구체화시키고 실천하는 것이 '속제(俗諦)'다. 아힘사(불살생, 비폭력)가 대표적인 속제다. 진제를 속제로 전해 구체적 실천 방향을 찾는 지혜가 절실하다. 이것이 바로 '방편의 지혜'이다. 참으로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로서 불교가 짊어지고 갈 질 짐이다. 이 짐을 싣고 가는 수레의 첫 출발은 바로 전법일 것이다. 이 전법의 수레에서 전쟁을 방지하는 화쟁의 방편이 싹 틀 것이다.

社 說

출가열반절, 정진의 시간으로

3월 26일(음력 2월 8일)은 싯다르타 태자가 화려한 왕궁의 안락을 뒤로하고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구도의 길에 나선 출가재일이다. 이어지는 4월 2일(음력 2월 15일)은 부처님이 모든 번뇌를 여의고 완전한 해탈에 이른 열반재일이다. 부처님오신날, 성도재일과 더불어 불교의 4대 명절로 꼽히는 이 두 날은 수행의 시작과 완성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불자들에게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전국의 여러 사찰에서 이 기간을 '출가열반절 정진주간'으로 선포하고 다양한 수행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 조계사와 봉은사는 이 기간 '8일 기도'를 통해 신심을 다지고, 양산 통도사는 팔상성도 법회를 통해 부처님 일대기를 배우는 시간을 갖는다. 부산 홍법사는 린포체 초청 법회를, 혜원정사는 어린이들이 불연을 맺는 수계식을 열었다. 이 밖에도 각 사찰에서 진행되는 참선과 철야정진 등 수행 프로그램과 승보공양은 모두 수행공동체의 전통을 이어 가는 소중한 실천이다.

전국 사찰서 8일간 정진·승보공양
스스로 발심과 점검 계기 삼아야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시기에 별다른 정진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는 사찰도 적지 않다. 물론 행사가 없다고 해서 그 의미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니겠지만, 부처님오신날의 화려한 축제 분위기에 비해 출가재일과 열반재일이 상대적으로 대중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출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리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결단이고, 열반은 마침내 번뇌를 여의고 대자유에 이른 완성이다. 이 두 지점은 수행자의 삶을 관통하는 하나의 길이며, 불자라면 누구나 마음속에 새겨야 할 이정표다. 출가가 없다면 수행의 시작도 없고, 열반이 없다면 수행의 지향은 흐릿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 불자들에게 '출가'는 타성에 젖은 일상을 엄중히 점검하고 삶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스스로 묻는 '발심'의 시간이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탐욕과 진심, 치심으로 얼룩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결단이 곧 출가의 정신이다. 또한 '열반'은 매 순간 일어나는 번뇌를 지혜의 눈으로 비춰보고 내려놓는 '성취'의 과정이다. 탐심을 하나 내려놓을 때, 우리는 그만큼 열반의 평온에 다가갈 수 있다.

이러한 출가와 열반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자신의 삶에 비추어 성찰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사찰과 종단의 중요한 역할이다. 부처님의 탄생을 기리는 것만큼이나, 출가와 열반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것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불자 개개인의 자각이다. 출가재일부터 열반재일에 이르는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스스로를 경계하며 정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타성적인 신행을 점검하고 초심을 다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출가에서 열반까지는 이미 부처님이 몸소 걸어 보이신 길이며, 우리 모두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이다. 하루 10분간의 명상이나 사경, 108배 등의 작은 실천이 일상의 방향을 바로잡는 전환점이 된다면, 그 의미는 절대 작지 않을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기사제보 (02)2004-8257
광고문의 (02)2004-8204
구독문의 (02)2004-8212
인터넷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 010-4152-4376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경기남부지사 : 010-8825-4367
경기북부지사 : 010-5323-0834
구독료 1개월 1만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중국 아미산,낙산대불,대족석굴 5일
보현보살의 도량 아미산과 낙산대불,
중국 4대석굴중에 하나인 대족석굴 순례
6월10일 출발~14일 도착
▶ 동참금 : 149만원

중국 문수보살의 성지
오대산 성지순례 5일
1,500년전에 조성된 운강석굴과
문수보살의 화현처 오대산 순례
6월07일 출발~6월11일 도착
▶ 동참금 : 159만원

오대산과 조주,임제선사 7일
운강석굴과 문수보살의 성지
오대산과 조주, 임제선사 순례
출발일 : 5월 27일 출발~6월 2일 도착
▶ 동참금 : 189만원

중국 실크로드 성지순례 10일
삼장법사 현장스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최고의 순례 길
6월04일 출발~6월13일 도착
■ 일정: 인천-서안(진시황병마용갱,화청지)-법문사(부처님불지사리)-천수(맥적산석굴)-난주(병령사석굴)-장액(대불사)-칠채산(일곱빛깔 무지개산)-가욕관·돈황(막고굴,명사산)-유원-투루판-우루무치(천산천지)-인천
▶ 동참금 : 349만원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 대탑 5일
보로부두르 대탑은 세계최대의 불탑으로 462개의 벽면에
부처님의 생애가 조성되어 있으며 화엄경에서 선재동자가
54선지식을 찾아가는 내용도 조성한 화엄경의 성지입니다.
6월18일 출발~6월22일 도착(5일간)
▶ 동참금 : 문의

인도 히말라야 라다크 순례 8일
고색창연한 티베트 사원들과 천년벽화의 신비 알치곰파
그리고 유명한 헤미스사원 축제
6월21일 출발~6월28일 도착
■ 일정: 델리-라다크(레)-알치-라마유루-레-헤미스-판공호수-레-델리
▶ 동참금 : 369만원

티베트 순례 칭짱열차 8일
라싸-갼체-시가체-삼예-칭짱열차-서녕-서안 등
티베트 주요 성지순례 일정입니다.
6월06일 출발~6월13일 도착
▶ 동참금 : 문의

우주의 중심-
티베트 수미산 순례 16일
부처님의 탄생과 같은 말띠 해인 2026년도는
12년 만에 찾아오는 성스러운 수미산 순례의 기회입니다.
6월16일 출발~7월01일 도착
▶ 동참금 : 570만원

인도,네팔 불교성지순례 9일
10월02일 출발~10일 도착
■ 일정: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영축산-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아그라-델리-인천
▶ 동참금 : 279만원

인도 관광여행 9일
10월02일 출발~10일 도착
■ 일정: 인천-델리-바라나시-카주라호-잔시고성-아그라-자이푸르-델리-인천
▶ 동참금 : 문의

백두산, 고구려유적 순례 5일
6월25일 출발~6월29일 도착
■ 일정: 인천-연길-백두산 천지(북파,서파 2곳 등정)-집안(고구려 옛수도-광개토대왕비)-심양-인천
▶ 동참금 : 159만원

예약 · 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
마음여행사 검색